

AMIC & **PETRABRIDGE**
법무법인 아믹 PARTNERS

AMIC LAW & PETRABRIDGE PARTNERS

Newsletter

Volume 02

[Market Insight]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인류의 시대에 성공이란
[Legal Insight]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금 회수수단 인정



[Market Insight]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인류의 시대에 성공이란

(원문: 스캇 벨스키의 2026년 1월 20일 블로그글)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새로운 주제에 대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의 역량과 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인간은 고유한 인간적 능력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마치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한 기업처럼, 우리 또한 미래의 문화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혁신해야 하며, 인간을 차별화하는 요소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5년 후의 일과 삶이 어떤 모습일지 속단하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 우리는 삶 속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기억과 데이터들을 축적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인공지능은 의료, 교육, 금융 및 일상 생활에 혁신을 일으켜, 오늘의 관행을 변화 시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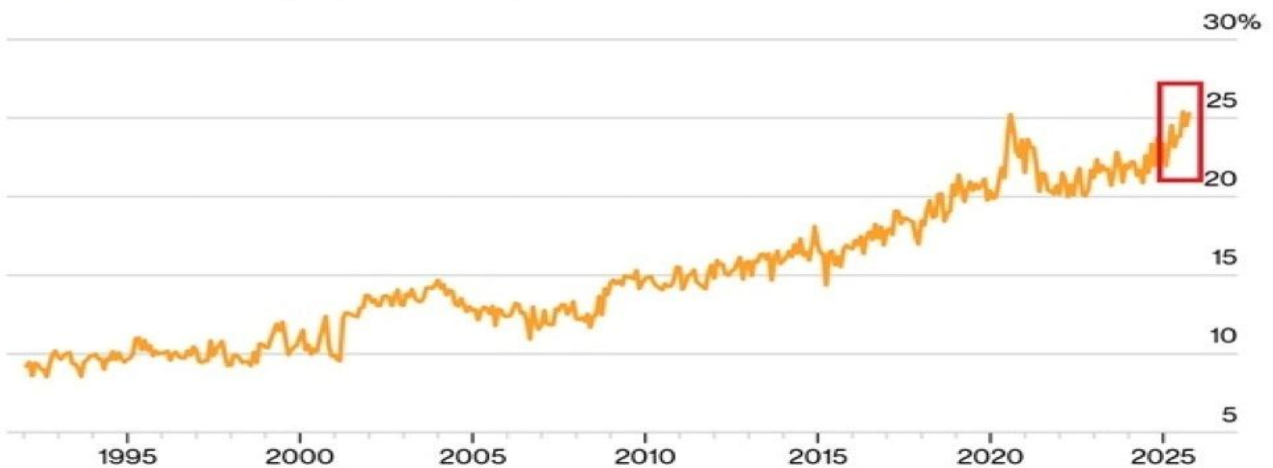
- 모든 종류의 콘텐츠와 디지털 경험은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개인화될 것입니다. 맞춤형 소프트웨어(DIY 소프트웨어)가 우리의 업무와 삶을 바꿀 것이며, 어떤 인터페이스든,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든 명령에 따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의 소통, 관계, 그리고 의사 결정은 우리가 상상 할 수 없는 수준의 능동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향상될 것입니다.

네, 삶은 달라질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노동부는 실업자 중 약 25%가 미국 대학 졸업자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College-Educated Job Loss Rises

White-collar slowdown hits four-year degrees

Share of US unemployed with four-year degrees



Sources: Department of Labor, Bloomberg

일자리 감소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 다 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공존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마주할 두 가지의 미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미래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중요성이 커지는 미래입니다.



어느 쪽도 종말론적인 전망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아는 일부 낙관적인 연구자들은 인간이 지금처럼 많이 일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은 인공지능이 업무와 삶을 자동화 시켜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연출"만 하는(영화 월-E처럼!) 세상이 되어, 인간의 중요성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미래, 즉 인간이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되는 미래를 꿈꿉니다.

인간이 자연스럽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존재가 되는 미래, 생산성보다 경험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그 경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미래, 과거 세대로 부터 내려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인간의 본능적인 성향, 즉 생존을 위해 자율성을 제한했던 그 성향을 극복하고, 논리를 무시하고 확률을 뛰어넘어 (새로운 기술이라는 안전장치를 활용하면서) 오직 인간만이 감히 시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욱 대담해지는 미래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초인류의 시대'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표현하고 발휘하는 시대로 진정으로 구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인생 중반에 접어들어, 미래 전망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거나, 항상 마음속에 생각만 해왔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어 안달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은 자녀들이 이 새로운 세상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이신가요?

어쨌든 초인간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적 감각의 근원을 알고 닦고, 인류 태동기부터 우리를 억압해 온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을 극복하며, 생각하는 방법과 융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양한 정보, 취사 선택, 그리고 판단력을 통해 '나만의 취향'을 만들어 내자.

취향이란 무엇일까요? 취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 인간은 이처럼 뛰어난 취향을 갖게 된 걸까요?

취향을 좌우하는 세 가지 분명한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정보를 입력하고(Inputs), 정보를 걸러내고(Filters), 그리고 판단하는 능력(Discernment)입니다.

- '입력값(Inputs)'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경험, 지식,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다양한 요소들과 뒤섞여 생각, 시각적 오류, 그리고 마치 지문처럼 여러분에게만 고유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입력값을 선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입력값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선택(Filters)'은 무엇을 차단할지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 알고리즘에 맞춰 설계된 저급한 콘텐츠, 그리고 주류이자 곧 진부함이 되어버리는 끝없는 트렌드와 유행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무시하기로 선택할까요? 이 현대 사회에서 당신은 어떻게 자신만의 필터를 적용하고 강화할까요? 필터는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지켜줍니다.

- '판단력(Discernment)'은 당신이 내리는 선택입니다.

다양한 정보에서 얻은 고유한 관점과, 자신만의 필터를 통해 얻은 명확한 신호를 바탕으로,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글을 쓰고 말할지, 무엇을 창조할지, 붓질 하나하나를 어디에 할지, 편집 과정에서 무엇을 잘라낼 지, 누구를 고용하고 누구와 함께할 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무엇을 입을지, 어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선택들입니다.

당신이 입력하고, 선택하고, 판단하여 형성된 취향은 인공지능 세상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인간적인 방어벽입니다. 당신의 취향은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들고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우위를 점하게 해줍니다.

인공지능이 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상품화함에 따라, 가치는 뛰어난 선택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로 옮겨갑니다. 취향이란 단순히 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리즘보다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차리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배제할지 아는 것, 그리고 언젠가 중심이 될 수 있는 내용 등을 사전에 식별하는 것입니다.

더욱 신중한 입력값, 선택, 그리고 판단력을 통해 취향을 최적화하세요. AI가 기술적 장벽을 낮추면서, '인간의 역할'은 실행하는 것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경험의 범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적용하는 나만의 필터에 대해 철저히 고민하세요. 그리고 호기심을 활용하여 접하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세요.

기존 관습을 뛰어넘어 당신의 주체성을 되찾으세요.

하지만 취향으로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취향에 따라 내가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종교와 문화적 규범을 따르며, 먹고 살고, 더 큰 선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드는, 인간 본연의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성적과 안정적인 급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기계와는 달리, 우리는 관습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항상 예외일 것이라고 믿는 고집(그리고 종종 무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담함을 끌어낼 때 비로소 세상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법칙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과 삶에서 복권을 굶듯 위험을 감수합니다. "열정을 쫓는 것"이라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독창적인 통찰력이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권을 행사할 때 기존에 관습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컴퓨터는 똑똑하고 효율적이어서 비이성적인 결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컴퓨터가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권은 인간 본연의 특성이며, 선사 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진화시켜 온 방식입니다.

- **능동성**이란, 어떤 상황 또는 타인의 말에 상관없이 자신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자신이 비범한 존재라는 순진한 인간의 믿음입니다.
- **능동적인 자세**란, 어떤 것에 깊은 영감을 받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 **자율성**이란, 안정과 소속감 보다도 본능적인 성향을 우선시하는 능력입니다.
- **주체성**이란, 무언가를 시도하는 대담함, 실패했을 때에도 계속 시도하는 끈기, 그리고 과정에서 마주하는 의구심으로부터 자신감을 얻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통계와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려 안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비록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대담함,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려는 용기가 수없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은 호텔 및 숙박업계의 모범 사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우버 창업자들은 택시 면허와 차량 공유 서비스 업계를 외면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선구자들은 무지가 주체적인 의지와 결합될 때 얼마나 큰 이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길을 택하려 하지만, 논리를 뛰어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제도와 정부는 자율성을 억제하고, 부모와 교사들은 창의성, 자립심, 주도성 같은 자율성의 기본 요소에 대해 말로는 강조하지만, 성적과 암기력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때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회 전체는 자율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다가 결국 그들이 성공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을 칭찬합니다.

과감하게 행동하세요.

어린 시절 우리 집에는 부모님이 걸어둔 작은 액자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때, 넌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질문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곤 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모든 핑계들(예를 들면, 부족한 자금과 기술, 그리고 낮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면, 과연 어떤 황당한 꿈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좌절감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극제였습니다. 초인간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지금 시대에, 우리 스스로의 직관과 도전 정신을 더욱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고 넘어질 때 붙잡아주는 거대한 쿠션과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하지 못할 변명이 사라질 때, 우리는 훨씬 더 대담한 일들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기적으로 기존의 관념을 깨뜨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 시절 우리 집 벽에 걸려 있던 조롱하는 듯한 팻말처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당

신의 고민하는 장애물 중 90%가 사라진다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어떤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면, 그 지식과 자신감이 과감한 도전을 시도할 의지를 북돋아 주지 않을까요? 이러한 기술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초인간적인 능력과 자립심을 갖게 되는 이 새로운 감각이 바로 "주체성"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세요.

재즈 연주자가 되세요.

대부분의 인류는 생존을 위해 정신 에너지의 대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2010년에 출간한 제 책 ‘아이디어 실현하기’에서 저는 우리 뇌의 제한된 RAM 용량을 안전을 확보하고, 식량과 거처를 찾고, 부족 내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쏟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초인간성은 우리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생존을 위해 하는 선택’을 없애고,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정보를 통해 취향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필터를 적용하여, 판단력을 날카롭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초인간성은 오직 인간만이 감히 시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주체성을 더욱 과감하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초인간성은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세상에서 자랑스럽고 편안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마치 각자 악기를 가지고 와서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조율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뛰어난 재즈 뮤지션들처럼, 우리 또한 인공지능 시대의 다양한 사고 기술과의 새로운 관계에 우리의 취향과 주체성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는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분야를 발견하고, 인공지능에 부족한 부분, 즉 당신의 취향, 주체성, 그리고 자연스러운 인간적 성향을 더해 보완해야 합니다.

초인류의 미래, 기꺼이 환영합니다.

초인간성이라는 개념은 "인류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의 일상적인 작업을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세상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고 무한정으로 배치될 것이라는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인간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신중함보다는 대담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마치 훌륭한 재즈 파트너처럼 여기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재즈 파트너로서 차세대 기술과 교류할 때, 우리는 인간성이 지닌 경쟁 우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Legal Insight]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금 회수수단 인정

박 병 준 법무법인 아믹 대표변호사 • 송무팀 리더
전 김·장 법률사무소 송무팀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4기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9회

서울고등법원은 2025. 12. 18. 선고 2025나208987 판결(‘어반베이스 판결’)에서, 창업자(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투자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투자자가 창업자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반베이스 판결의 핵심 논거

법원은 투자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창업자의 민법상 무효(제103조, 제104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보증’이 아닌 ‘독자적 의무’

재판부는 풋옵션 조항을 창업자가 회사의 채무를 단순히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계약 당사자로서 투자금 회수 위험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독자적인 계약상 의무”로 해석했습니다.

- 무과실 책임 인정

재판부는 계약의 문언에서 ‘회생절차 개시’라는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창업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계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이상 그 문언에 따라 계약을 해석하여야 하므로,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창업자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는 해석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반베이스 판결의 시사점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효한 수단

이번 판결은 풋옵션 조항의 법적 성격을 ‘보증’이 아니라 ‘독자적 계약상 의무’로 파악함으로써, 회사 외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금 회수 구조가 유효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계약 문언에 대한 존중

이번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라는 객관적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창업자의 고의·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경영 악화 사유(예: 회생절차 개시)가 발생하면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투자계약서 체결 시 투자자, 피투자사 모두 계약 내용에 대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ONTACT US

법무법인 아믹

임 영 훈 대표변호사 yhlim@amic.kr
박 병 준 대표변호사 bj.park@amic.kr
서 지 원 대표변호사 jwsuh@amic.kr

주식회사 페트라브릿지파트너스

김 양 태 대표이사 ytkim@amic.kr
조 우 상 이사 wsjo@amic.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29 층

Tel. 02 6953 9930
Fax. 02 6442 9930
Mail. amic@amic.kr